

삶의 새로운 방식, 철학의 탄생

김현(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프라디에(Pradier, James, 1837-39)가 조각한 「공공 교육」. 교육이란 새롭게 태어난 세대에게 기성의 세대가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 진정 소중한 선물이 되느냐,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불편한 족쇄가 되느냐는 교육의 내용에 달려 있다. 학생이 갈망하고 갈망해야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스스로 치열하게 추구하며 교육의 끝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고, 장차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와 세대를 창의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된다면, 인간 사회는 훨씬 밝은 전망 속에서 굴러갈 것이다. 이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면?

★ ☆ ★ ☆

철학이란 무엇인가? - 소크라테스의 생각

“소크라테스, 이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파이드로스가 물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이소크라테스의 생각 속에는 본성적으로 어떤 철학(tis philosophia)이 깃들어 있어.” 플라톤이 쓴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278e-279a) 소크라테스는 군소리 할 것도 없이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다. 그런 그가 인정했으니, 이소크라테스도 철학자의 반열에 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서양 철학사를 다룬 책들 속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에게도 낯선 이름일 듯. 이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일생을 철학에 바쳤다고 역설하는데도, 서양의 철학사가들은 그를 철학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도대체 철학이 뭐 길래?

1955년 하이데거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철학으로 새겨진 낱말 필로소피아(philosophia)가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낱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통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낱말의 쓰임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꼴 자체가 잘 보여준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묻고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철학이었기 때문이란단다. 이 질문이 찾는 ‘무엇’이란, 정의가 정의일 수 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 수 있는 원인과 본질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철학적 탐구의 창시자로 소크라테스를 꼽았다.

소크라테스는 일생동안 이 ‘무엇’을 갈망하던 사람이었다. 보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순간, 예를 들면 아름다움 혹은 정의로움을 갖는다. 하지만 꽃은 시들면서 아름다움을 잃고, 울곧았던 청년은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여 정의로움을 버린다. 소크라테스는 꽃이 아름답게 빛나고, 한 청년이 정의롭게 불타오르던 찰나를 포착하고, 그 한때를 빛나고 불타오르게 했던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의 참모습을 오롯이 알고자 열렬하게 갈망했다. 그 참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며, 정의로운 것들을 정의롭게 하는 까닭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의 한결 같은 참모습,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gnôsis)과 올바른 지식(epistêmê)이 진정한 지혜(sophia)며, 그 지혜를 사랑하는(philo) 일이 철학(philosophia)이라고 했다. 반면 때와 장소를 따라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며, 이랬다저랬다 변하는 현상들을 아는 것은 진정한 앎이 아니며, 소문이나 한낱 의견(doxa)일 뿐이라고 했다. 현상 속에 나타나는 정의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엔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잠시 머물다 떠나갈 뿐이므로,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의 참모습을 알아야만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philosophos)가 될 수 있단다. 반면 그것들에 관해서 한낱 의견 따위를 내거나 그런 의견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호사가(philodoxos)에 불과할 뿐.(『국가』 475e-480a)

새로운 가치, 진정 앎을 사랑한다는 것.

튀타고라스(기원전 약 580-490?)에게 레온이 물었다. 레온은 당대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튀타고라스가 대답했다. “나는 진정 앎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앎을 사랑하는 자라고? 의아해하는 레온에게 튀타고라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이지요.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이는 승리를 얻기 위해 경기를 하러 오고,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러 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이는 축제를 바라보기 위해 오는 관람객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노예 근성을 타고난 이들은 화려한 명성과 물질적 풍요를 좇아가지만, 진정 앎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 VIII. 8)

진정 앎을 사랑하는 자(philosophos)라? 도대체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가 “필로소포스”이니, 그가 하는 일은 “필로소피아(philosophia)”일 텐데, 말의 뿌리를 따지자면, 이 말은 “앎(sophia)”을 “사랑하는(philo-)” 일을 뜻한다. 아에티오스에 따르면,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튀타고라스라고 한다.(『학설 모음집』 I. 3. 8) 그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다. 그는 기존에 통용되던 가치와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했는데, 그런 자기 삶을 표현할 말이 마땅히 없었다. 그러니 새로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그는 전쟁터에서의 승리와 영광,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영웅이려 하지 않았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운동 경기나 각종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내는 것조차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 재산을 축적하여 화려한 삶을 누리는 것도, 권력의 정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무리

와 모듬을 주무르는 맛도 그가 열망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진정 알고자 하였다. 그것이 그가 자기 삶을 모두 바쳐 간절히 닿고 싶어 했던 가장 높은 가치였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1509-1510). 중앙에 그리스 철학의 거장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왼쪽에, 또 다른 거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라파엘로는 그 두 사람의 주변에 피타고라스를 비롯해서, 스토아 학파를 창설한 제논, 에피쿠로스,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 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디오게네스, 유클리드, 조로아스터와 프톨레미오스 등을 그려 넣었다. 서구 사상사를 구축한 고대 철학자들의 모임 속, 오른쪽 끝 부분에 라파엘로는 자신의 모습을 살짝 집어넣었다.

“곧 죽게 되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을 자네가 본다고 하세. 그 모습은 그가 ‘진정 **삶**을 사랑하는 자(philosophos)’가 아니라, ‘제 **몸**이나 사랑하는 사람(philosōmatos)’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아마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philochrēmatos)’이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philotimos)’이지 않을까?”(플라톤, 『파이돈』 68b-c).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그는 전쟁의 영웅도 아니며, 권력의 정상에 선 자도 아니며, 대부호도 아니었다. 책도 하나 쓰지 않았고, 무슨 돈벌이를 고정적으로 했다는 기록도 없다. 천하의 백수 소크라테스! 그는 오로지 진정 **삶**을 사랑하는 자, 필로소포스로서 살았을 뿐이다. 그의 삶의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낯선 것이었다. 그는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찾아가 배우려 하였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술자리에서 그 어디에서든, 그는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진리를 추구하였다.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옳음, 아름다움, 정의는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그 답을 찾아 항해하던 한 척의 새로운 돛단배, 새로운 유형의 삶을 살아가던 인간이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열망한다.”(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980a22) 인간의 여러 본성 가운데 이 지적인 본성에 충실하고, 이 열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모두 던지는 사람을 진정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지금이나 처음이나 사람들이 진정 **삶**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때문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손쉬운 난관에 놀라지만, 곧이어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며 좀 더

큰 문제들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난관에 부딪히고 놀라면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 앎을 사모하며 열망하기 시작한다 (epilosophēsan).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알기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쓸모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982b11-21)

뜻하지 않은 대상을 맞닥뜨리어 놀라는 까닭은 그것이 도통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못 견디면, 열렬히 알고자 한다. 진정 앎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알고자 열망하는 데서 시작된다. 알고 싶어 환장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궁금중에 온갖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치르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날아갈 듯 기쁨을 느끼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때돈을 버는 것도, 날씬한 몸매와 멋진 얼굴을 갖게 되는 것도,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도, 권력을 손아귀에 쥐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좋을까 싶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필로소포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거리로 뛰쳐나오며 “헤우레카(heurēka; 알아냈어)!”라고 외쳤다는 아르키메데스(기원전 287-212)처럼. 오로지 앎을 위해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고, 앎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 앎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철학(哲學)’으로 번역하는 “필로소피아”는 원래 이런 뜻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앎에 대한 희망으로 평온한 소크라테스, 그는 참으로 ‘진정 앎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인식, 진정한 앎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진정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 앎을 사랑하는 것의 개념을 잘 다져두었다.(『형이상학』 980a27-982a2) 그는 인간의 앎을 네 단계로 나누었다. 최초의 단계는 감각(aisthēsis)이다. 눈과 귀로, 피부와 코, 혀로 대상과 처음 만나 느껴 아는 것.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며 즉각적이며, 가장 생생하다. 하지만 감각은 금방 회피해지며, 기억이 없다면, 마침내 하얗게 지워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다음 단계를 기억(mnēmē)으로 꼽았다. 감각 내용을 간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각보다는 더 높은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억이란 감각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잔상, 여파, 여운 또는 메아리기에,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감각의 결과다. 그래서 감각된 적 없는 다른 대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기억 자체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기억된 것과는 다른, 새롭게 나타난 대상, 하지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기억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앎. 그것을 경험(empeiria)이라 했다. 경험이란 따로 따로인 기억들을 묶어 하나의 울타리(peira)를 쳐주고 그 안에(em-) 넣어두는 데서 성립한다. 경험적인 지식은 새로운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그동안 감각으로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당성과 적중률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 앎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된 지식은 아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느 해, 따뜻한 봄벌을 받으며 후배와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뜨거운 것에 뒀을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혹시 아니?”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했다. “쇠뿔이 최고지요.” 뭐라, 쇠뿔? 그 대답에 놀란 나에게 그는 자기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달구지를 발견하고 달려가 뒤에 매달렸다. 달카당대며 가는 달구지에 아슬아슬 매달려 가는 재미는 쏠쏠했는데, 문제는 그 달구지가 펄펄 끓는 쇠죽을 싣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열마를 가다가 소달구지는 큰 돌에 걸려 덜커덩했고, 그 바람에 쇠죽을 담은 가마솥이 오뎅이처럼 후배가 매달린 쪽으로 기울어지며 한 대접 분량의 쇠죽을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하필이며 그 뜨거운 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후배의 머리로 쏟아졌다. 그는 그

뜨거운 서늘에 “악!” 소리를 지르며 기절했다. 독자들은 그 후배가 현재 대머리는 아닐까 상상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머리카락들은 멀쩡하다. 지혜로운 이모님 덕분이란다. 기절한 그를 보고 그의 이모가 쇄똥 한 무더기를 구해와 쇄죽에 툇 머리에 두텁게 발랐단다. 큼직한 쇄똥 모자를 쓰고, 한 이틀 푹 잤더니,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나았다는 얘기다. 한바탕 무용담을 늘어놓은 후배는 확신을 가지고 덧붙였다.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다 잘못하여 손을 툇다면, 쇄똥이 최고란다. 그의 확신은 그와 그의 지혜로운 이모님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툇었는데 쇄똥 발라 낫지 않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란다. 좋다, 접수. 뜨거운 것에 툇었을 땀 거침없이 쇄똥. 그의 경험담 덕에 나의 민간요법 지식이 하나 늘었다.



라파엘로가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한 철학(philosophia).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각각은 엠페도클레스를 비롯 그리스 철학자들이 선호하던 세계의 네 가지 아르케 즉 근본요소인 물, 불, 공기, 흙을 상징한다. 여인은 『윤리에 관하여(Moralis)』와 『자연(Natura)』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철학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아기 천사들은 “원인을 아는 것(Causarum Cognitio)” 이라고 쓰여 있는 서판을 들고 있다. 이것은 철학이란 대상이 무엇이든, 그 근본 원인을 아는 것이라는 그리스의 전통을 따른 정의이다. 이 그림은 앞에 나온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 위에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식은 진정 삶을 사랑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것이 아니다. 경험적인 지식에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내가 다시 후배에게 왜 쇠똥이, 쇠똥의 어떤 요소가 화기(火氣)를 가라앉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다. “전 모르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의 지식은, 그의 지혜로운 이모의 지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왜?”라는 질문 앞에서 맥없이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가 그 원인을 안다면, 쇠똥의 어떤 성분이 화기를 가라앉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들의 지식은 진정 올바른 지식이며, 의학적인 전문 지식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때엔 쇠똥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 쇠똥 속의 그 성분, 그것만 갖추면 된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앎(sophia)”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사물의 첫 번째 원인(aitia)과 원리(arche)들에 관해” 아는 것이었다(『형이상학』 981b28-29).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소, 원리를 찾아가는 치열한 앎의 추구, 앎에 대한 간절한 애정과 그리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학’이라 번역하는 필로소피아다. 서양 사상의 뿌리에 단단히 버티고 있는 그리스 철학은 이런 추구하고 삶의 태도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서구의 힘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누르고 이성의 힘을 찬란하게 추켜세우던 아폴론적인 것의 위험한(?) 꽃이었다.

다시, 철학이란 무엇인가? - 이소크라테스의 생각

그런데 과연 그런가? 다시 묻는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인가?’에 주목하자. 이건 현재시제다. 만약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라면, 이 질문은 철학의 과거 모습이나 미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철학이 무엇이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학이 변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萬物流轉)의 전제, 더 나아가 변화의 철학, 생성의 존재론의 김새를 읽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질문의 현재형은 시제를 초월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면, 그것은 현재형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다. 이런 현재형은 과거와 미래의 틈새에 끼어있는 순식간의 찰나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금을 지우고, 흘러가는 모든 순간들에 현재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시간의 흐름 전체를 넘어서는 연속성, 영원불변하는 초월성을 노린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철학이 이런 저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의 겉모습 너머에는 철학을 철학이게 하는 그 ‘무엇’, 철학의 진짜 모습(idea)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으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전제와 플라톤의 본질주의적 형이상학과 존재의 철학이 깃들여 있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선, ‘철학이란 무엇이였는가?’라고 질문을 바꾸어 답을 찾는 것이 더 좋다. 철학을 철학이게 하는 영원불변하는 본질과 참모습이 있다면, 먼저 과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어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고, 반대로 철학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변한다면, 철학이 무엇이였는지를 밝힘으로써 철학의 변화와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이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이 태어났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엔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는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듬지어 있다. 그들에게 철학이 지향하는 지혜란, 변화무쌍한 현상을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한결같은 참모습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풍경을 좀 더 넓은 눈으로 둘러볼 때, 이와 같은 의미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 견지하던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임을 알게 된다. 특히 지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철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변하지 않는 본질 따위는 없고, 그것의 참모습에 대한 지식은 공허한 망상일 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며 합의될 수

있는 **의견**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이라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허황된 것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의혹을 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소크라테스 라인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소크라테스의 목소리다. “지혜와 철학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며,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epistēmê) 따위도 인간의 본성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sophos)이란 시의적절한 의견(doxa)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며, 그와 같은 분별력을 민첩하게 취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philosophos)입니다.”(『안티도시스』 270-1)



그리스의 전통적인 교육을 엿볼 수 있는 그림. 시와 음악, 체육 등이 교육의 내용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이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들은 수사학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학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으면서 교육을 혁신하려고 하였다.

참된 지혜를 위한 수사적 인간의 철학

이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겨냥하는 것 같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통해 추구하던 지식에 우리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영원불변하는 보편적인 지식은 급변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쓸모가 없다는 뜻이겠다. 반면 그는 소크라테스가 참되지 않다고 폄하하던 한갓된 의견을 오히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유용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끌어올렸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고 생생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그는 참된 지혜란, 영원불변하는 본질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가치관이 어우러진 삶 속에서 좋은 의견을 시의(kairos)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분별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철학, 즉 지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을 수사적 인간(rhêtorikos)이라고 하였다.

이소크라테스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일 자체가 또한 철학이었다. 앎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향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교육(paideia)을 통해 철학의 의미를 찾았던 그였다. 그러나 그동안 서양사람들은 소크라테스-플라톤 라인으로 구축된 서구 철학사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을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모양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소크라테스에게 철학-필로소피아(philosophia)라는 이름을 주길 꺼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도 철학자라는 이름을 주며,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